

# “물은 상품이 아니다”

2003년은 UN이 정한 ‘물의 해’이다. ‘물 쓰듯 쓴다’라는 말이 생겼을 만큼 한반도에서 물은 흔한 자원이었으며, 그러므로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시각 자체가 아직은 낯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물로 인한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물 부족문제가 먼 나라의 일이라고 치부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히말라야 지방의 개천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물리학에서 생태학으로 전공을 바꾼 반다나 시바가 펴낸 《물전쟁》에는 물전쟁이 종교간의 갈등, 종족간의 갈등으로 위장되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세계 도처에서 실제로 물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만 물전쟁을 전쟁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편자브 지방에서는 1980년대에 분쟁이 발생하여 1만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분쟁의 주요인은 강물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언론에서는 분쟁의 원인이 시크족의 분리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물전쟁이 종교전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시바의 주장이다.

반다나 시바는 물은 지구가 가진 소중한 자원이고 다른 사람의 몫을 강탈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지구가 가진 자원의 80퍼센트를 사용하는 겨우 20퍼센트 인류의 자원낭비적인 생활방식은 나머지 80퍼센트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바는 또한 지난 40년간 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5천만 명의 수몰민은 ‘파괴적인 개발과 기술’이라는 테러의 희생자이며, 태풍, 홍수, 가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기후 변화의 테러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의 재해가 인간의 탐욕이 자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후재난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제3세계의 주민들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작농, 목축업자, 섬나라의 가난한 어민 등 가난한 제3세계의 주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환경난민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 물은 대체품이 없다

현재 세계의 물부족 문제는 인간의 탐욕, 무분별한 기술적용 그리고 자연이 재충전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세계가 심각한 물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위기를 시장경제적인 관점과 생태적인 관점이라는 두 가지 대립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장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물부족 현상은 물의 교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물이 자유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분배될 수 있다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물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물을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저자가 보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는 물의 순환에 의한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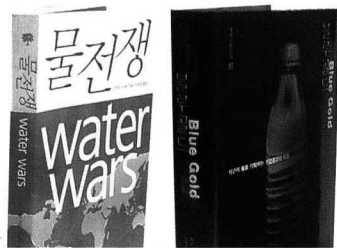
적 한계로서, 한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빈곤에 의한 경제적인 한계이다. 물을 시장을 통하여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지나치게 이용하면 절대적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체품이 있다는 것이 시장논리의 핵심이나 물은 대체품이 없다. 반다나 시바는 물위기는 경제적 원인을 갖는 생태적 위기지만 시장경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시장경제적인 해결책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본다. 생태적 위기의 해결책은 생태적으로 찾아야 하며 물위기를 해결하려면 생태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공공재公共財로 정의되던 물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사유재私用財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는 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물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의 자유거래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물 소유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물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면, 수자원을 정부가 규제하는 대신 자유시장에 맡겨두라고 주장한다. 공공의 수자원을 민영화하려는 현대의 추세는 카우보이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카

우보이적인 개념과 전용권 원칙이 등장한 것은 미국 서부의 탄광촌이었다. 전용권의 원칙에 따라 절대적인 재산권이 확립되었으며 물을 팔고 교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물시장이 형성되어 물의 가격은 독점적인 전용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정착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생태계의 한계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계없이 사실 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힘이 정의다'라는 카우보이적 정서를 보여준다. 카우보이 논리는 물의 생태적 기능을 무시하는 개인들이 물사용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전용권이 물가에 최초로 정착하는 사람의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지만,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 즉 인디언들의 전용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블루 골드

이러한 물의 사유화(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2002년 여름 개마고원에서 출간한 《블루 골드》를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블루 골드 Blue gold란 사유화된 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운동인 '푸른 지구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모드 발로와 세계화국제포럼에서 기업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토니 클라크의 공동 저술인 《블루 골드》는 반다나 시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은 인류의 영원한 공동재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평하게 물을 사용할 권리가 삶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물전쟁》에 비해 이 책은 '지구의 물을 약탈하는 기업들과의 싸움'이라는 부제가 설명하고 있듯 물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는 측면이 강하다.

모드 발로와 토니 클라크는 물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유형은 영국처럼 정부가 물의 공급과 관리를 한꺼번에 기업에 팔아버리는 것, 두 번째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정부가 기업에 허가를 내주거나 임대해 줌으로써 기업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챙기고 늘 흑자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소 규제가 가해지는 유형으로 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 서비스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지만, 수입은 물론 흑자로 인한 이익도 챙길 수 없다. 예견된 일이지만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 민간기업의 소유주와 주주는 물의 지속적인 공급이나 공평한 분배가 아닌 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물 서비스의 비용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물 서비스가 민영화된 이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도요금이 15퍼센트나 증가했고, 영국에서는 1989년과 1995년 사이에 일반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도요금이 106퍼센트 올랐고, 기업 이윤은 692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러한 물의 민영화 이면에는 현재 공공서비스 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6개의 개발도상국가를 비교분석한 1996년의 자료에서 칠레의 여러 물 공기업은 효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브라질 상파울로 수도관리국도 예로 든다.

그간 국가가 삶의 기반인 물을 보호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므로 모드 발로와 토니 클라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보존하는 일은 이제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전쟁》과 《블루 골드》 두 책 모두 이익을 위하여 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연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천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물의 양은 한계가 있으므로 절약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다나 시바의 말처럼 물은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것이다. 그러나 지구를 위협하는 이 심각한 위기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수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

양선희 기자

《물전쟁》 | 반다나 시바 지음 | 이상훈 옮김 | 생각의나무 | 256쪽 | 값 12,000원

《블루 골드》 | 모드 발로·토니 클라크 지음 | 이창신 옮김 | 개마고원 | 400쪽 | 값 18,000원